



“잘못된 현실 스크린으로 다 이야기 하렵니다”

철거민 애환 다룬 독립영화 ‘아직 여기 있다’ 촬영 광주출신 이동석 감독

“삶의 터전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그들을 몰아내려는 응역업체 직원들, 그렇지만 진짜 돈을 버는 것은 모두를 몰아낸 후 건물 짓고 개발하는 사람들 이죠. 좀 더 많은 사람이 부당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스틸을 꽂은 영화감독 이동석 씨는 2012년 8월 서울을 명동상가 철거현장에 있었다. 평생 살아온 집과 가게를 지키려는 사람, 그들을 아주 시키려는 이들이 얹히고 살려 아비규환을 만들었다. 누가 시켜서 간 것은 아니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3박4일 동안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조직적 폭력 앞에 하염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땅에 떨어지는 것을 눈 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어느덧 시위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전쟁터도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을 쫓아 죽일 것만 같은 살기를 느꼈어요. 넷타이 차림 직장인들, 여대생들도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지는 이들을 보며 하나님 시위대에 참여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누구든지 폭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영화를 통해 잘못된 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독립영화 ‘아직 여기 있다’는 이렇게 출발했다. 식지 않는 물분을 고스란히 담아내려 3박4일 동안 제작진과 연기자들이 밤을 새워 찍었다. 철거장면을 재연하려 빙 건물을 벌렸다. 여기에 고물상에서 일어온 생활용품을 채우고 감독의 뜻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들이 풍채 25분짜리 영화를 탄생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 2012년 10월 광주독립영화제에서 상영한 후 평론이 쏟아졌다. 상영영화처럼 많은 대중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평론가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이

감독은 편집 등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제작비를 마련하려 공사장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동석 감독, 그가 처음 영화에 빠져든 것은 2003년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김동원 감독의 ‘송환’ 때문이다.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봤지만 그만큼 커다란 울림을 준 영화는 없었다. 고등학생 이동석은 그때 깨달았다. ‘영화 한 편이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능력시험에 끌려마자 학교 방송실에 있는 카메라를 쟁여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영화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지만 머릿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화면에 담고 싶었다. 현실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교사가 되기로 하고 사범대학에 갔지만 영화 이외에는 볼수도 없었다. 영화 동아리에서 수많은 영화를 보며 감독의 꿈을 키웠다. 심지어 군대 휴가를 나와서도 밤을 세

워가며 영화를 찍었다. 2004년 처음 영화에 도전한 후 지금까지 12편을 만들었다. 현재는 광주의 숨겨진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잇다’에서 활동 중이다. 17일 오후 7시 광주 북구 용봉동 아름다운 가게현관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사립책도서관’에 참여해 자신의 영화 이야기를 청년들과 나눌 예정이다.

‘온션 일레븐’으로 유명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처럼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싶다는 그는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은 없지만 그에게 주목하는 평론가와 관객들은 꾸준히 늘고 있기에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영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kwangju.co.kr



엄지원, 건축가 오영욱씨와 열애



배우 엄지원(36)이 건축가 겸 작가 오영욱(37)과 교제 중이다.

엄지원의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엄지원이 오영욱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결혼 계획은 없지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 드리겠

다”고 말했다.

엄지원은 지난 2002년 드라마 ‘황금마차’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싸인’ ‘무사식 상팔자’, 영화 ‘극장전’ ‘박수건달’ ‘동방’ ‘페스티벌’ 등에 출연했다. 최근 배우 한혜진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영욱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현재 오기사디자인을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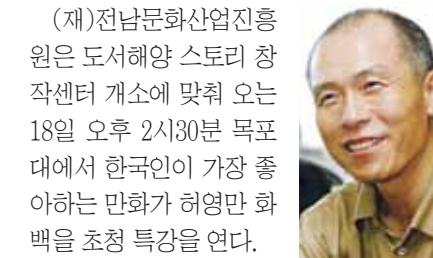
조혜련, 중국어 교재 냈다

‘기적 중국어’ 출판기념회

방송인 조혜련이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5층 아모리스홀에서 ‘기적 중국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인사말과 강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씨는 “20년간 중국어 연구에 매진해 온 중국어 전문가이자 여동생인 조혜숙과 함께 만든 책 함께 만든 책으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이라며 “중국어가 어렵지 않고 매력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36살의 나이에 일본 방송 진출을 목표로 세운 그녀는 6개월 만에 일본어를 쓰고 말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4월부터는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 1년 만에 신 HSK 5급을 따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허영만 내일 목포대 특강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해양 스토리 창작센터 개소에 맞춰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 목포대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허영만 화백을 초청 특강을 연다.

여수 출신인 허 화백은 이날 도서해양 스토리 창작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산·학·연 관계자, 대학생, 시민 등 100여명에게 ‘식객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도서해양 스토리 창작센터는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공모한 ‘2013년 지역 스토리창작센터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다도해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원천 스토리 및 창작 스토리를 발굴·개발을 하게 된다. 문의 061-280-7031. /김경인기자 kki@

대한무공자수훈자회, 송봉근 박사 초청 강좌



대한무공자수훈자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회장 이선규)는 최근 서구지회 대강당에서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송봉근 박사를 초청해 노인성질환 강좌를 갖고 회원원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서구협 경로위안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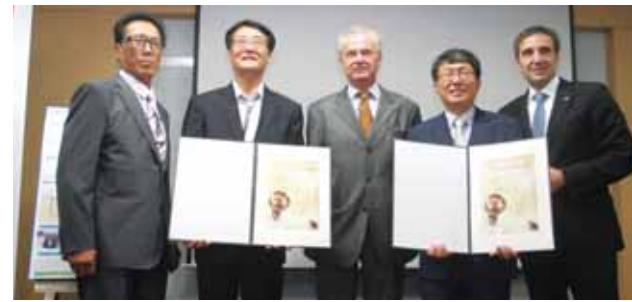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서구협의회(회장 김기동)은 최근 광주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800여명을 초청, 낙죽을 끓여 대접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경로위안 봉사활동을 벌였다.

조선대병원, 우리 가곡 부르기 음악회



조선대병원(병원장 민영운)은 최근 환자들의 쾌유를 비라는 마음을 담은 우리 가곡 부르기 음악회를 가졌다. /조선대병원 제공

신안군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빛물이용 프로젝트가 오스트리아 EG재단에서 주관하는 ‘2013년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신안군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안군 신의면 기도의식수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빛물이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신수단이 극심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신수단 해결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오스트리아에서 설립된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는 매년 전 세계에서 출품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으로 가장 권위 있는 환경상 중 하나다.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은 지난 2011년 서울시 송파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한 이후 신안군, 서울대학교가 지난 7월 15일 두번째(관·학 최초)로 수상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승일고 ‘자랑스런 송일인상’ 시상



광주승일고등학교(교장 서현기)는 15일 대강당에서 직업전문가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직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동창회 회원과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한 ‘자랑스런 송일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재유(광주대 명예교수), 정규남(광신대 총장), 황규철(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무), 채영남(승목회 회장), 김정록(새누리당 국회의원), 송영무(순천대 총장), 김창남(남양건설 회장), 박철환(해남군수), 이석희(무등일보 뉴미디

어국장), 박종관(육군 장군), 정수(공군 장군), 허경렬(전북 경찰청 차장), 정성운(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김성환(국무총리실의 전국장), 허 택(전남대 의대 교수), 한승재(일곡병원장), 김택수(현 대우증권 탁구총감독) 등이 수상했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 혁신한 공로를 기념해 학교법인승일학원 한기승(광주신일고교 담임 목사)이 사장에게 김창남 총동창회장이 공로패를 증정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단국대 장유정 교수

이난영 ‘바다의 꿈’ 리메이크



한국 근대 가요사 전문가인 단국대 장유정 교수 가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이 1930년대 부른 ‘바다의 꿈’을 리메이크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근대가요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에 따라 조영암이 작사하고 박시춘이 작곡해 이난영이 1939년 발표한 스윙 리듬의 ‘바다의 꿈’을 재편곡해 노래했다. 이곡은 당시 해수욕장 풍경이 가사에 담겨 ‘해수욕장 풍경’으로도 불렸다.

장 교수는 “‘바다의 꿈’을 처음 들었을 때 선율이 경쾌하고 가사가 재미있어 어깨춤이 필요했다”며 “노래를 들으며 1930년대 해수욕장의 풍경을 그려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난영은 대표곡 ‘목포의 눈물’ 등 트로트 풍의 곡으로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정만주·강명희씨 장남 현철(농협 전남경영지원팀)군 이철건(전 농협 무안군지부장)·정은주씨 장녀 하경(초등학교 교사)양=20일(토) 오전 11시 ST아워컨벤션 4층 크리스탈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16일 (화) 오후 7시 011-645-2284(회장 이의준).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자문회의=19일(금) 오후 5시 종회 사무실 3층 062-228-3368.

▲(사)전주이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22일 (월) 오전 11시 011-605-2059(회장 이보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책임음주를 통한 협박한 가정 만족기 프로젝트 ‘한솔(부부를 일컫는 순 우리말) 절주학당’=25일(총 7회·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까지 광주북구 중동관리센터 구)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조애옥)=북구 무등로 180번길 5호(신안동 131-1 번지 행남자기 2층) 062-523-6028. ▲한국 애질린트 테크놀로지 CAG(화학분석그룹)=애질린트 광주 교육장 개소, 상무지구 우정청 맞은편 창호빌딩 4층 062-376-1981.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외상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이동통합교육보조사업단

=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자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친환경농업사업단=고연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 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제초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용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 위탁’ 위탁부모=부모 사망·이혼·실직·가출·학대 등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 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사)한국영화인 종 연합 광주 지역 ‘엑스트라’, 단역 대 모집’=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길 보조출연여부 모집. 영화를 좋아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분 활동 가정을 원하는 분에게 1인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장구, 징, 광과리, 북

영. 062-385-9077.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자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볼링장 건물 1층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후 10시), 탁구교실(화·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푸른학당 지원봉사 및 학생=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겸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초·중·고 출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개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